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종가축인정제 시행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겨울철 농기계 등 농업시설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동향 분석 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인증 절차 통합으로 생산자는 편리하고!,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는 더 안심!」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개선배경]** 2006년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활성화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그 **성과 미미**
 -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 GAP제도를 우리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차별화를 위한 기본틀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정과제(77번)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의 적극적인 추진
- [기본방향] GAP인증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확보, 우리농산물 안전성 제고로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
- **[목표]** 현재 **3%수준**에 불과한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2020년 50%)
 - ※ GAP 생산량: (‘12) 691천 톤(4%) → (‘15) 1,700 → (‘17) 5,000
 - ※ GAP생산·유통 조직육성: (‘12) 925개 → (‘15) 1,100 → (‘17) 3,300
 - ※ 소비자 GAP 인지도 제고: (‘12) 35.3% → (‘15) 60 → (‘17) 70
- **[중점사항]** 농가참여 저조, 안전관리 미흡, GAP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부족, GAP농산물 수요 미흡, GAP추진동력 취약 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해결에 중점

□ 주요내용

- **GAP 인증절차를 통합하여 참여농가 확대**
 - 현행 3단계로 복잡한 GAP 인증신청절차를 1단계로 통합, GAP인증신청 시 필요한 총 12건의 구비서류도 3건으로 대폭 감축

- GAP제도에 이력추적이 포함돼 있음에도, 별개의 제도인 이력추적관리 제도 등록하는 조항 폐지

○ **위해요소 관리체계화 등 GAP 인증기준 내실화**

- 인증 시 심사를 위한 위해요소 점검표를 신설하고 농가는 위해요소 점검표에 따라 위해요소 관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GAP인증 기준 내실화
- GAP 인증 농산물 표지도형(마크)상의 불필요한 표시항목 및 표시사항을 개정하여 자주 표지도형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사항 해소

○ **GAP 현장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시스템 구축**

- 형식적이었던 GAP교육시스템을 개선하여 철저한 교육으로 GAP제도를 활성화하는 기초를 튼튼히 하도록 준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GAP교육 총괄기관으로 지정, GAP 전문성과 교육 시설 등의 기반을 갖춘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 **GAP 농산물 수요확대 및 유통통로 강화**

- 기존 생산자조직이나 유통업체 중 GAP 농산물 취급·판매 희망 사업자를 GAP유통사업단으로 지정하여 GAP 농산물 확산의 핵심주체로 육성
- 다소 어려운 GAP 명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현장업체·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순화

○ **정책사업간 연계지원 체계 구축 등 GAP 추진동력 강화**

-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 등 사업대상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우선지원방안 등 마련
- 2015년 친환경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GAP인증전환대책 마련도 함께 추진

주요 농정 이슈_2

토종가축인정제 시행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14년 1월부터 『토종가축 인정제』 시행: 제도 시행으로 농가 소득향상과 소비자 구매지표 제공 기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시행배경]**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동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시행목적]**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 제공
- 2013.12.9일 「축산법」에 근거,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 제정하여 2014.1.2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대상가축]**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개 축종
- **[인정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등 5개 기관
- **[참여방법]**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인정 심사를 거쳐 인정서 교부
- **[표시판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기대효과]**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로 활용

거시경제 동향

2013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11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2013년 11월 수출물가지수

○ [수출물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8% 하락**

※ 전년 동월대비 2.5%↓

- (농림수산물) 농산물 중심으로 **전월대비 2.4% 하락**(전년 동월대비 8.4%↓)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하락	배 -3.4, 냉동참치 -4.3, 신선어패류 -0.3, 냉동어류 0.3	냉동어류 -15.1, 냉동참치 -10.0, 신선어패류 -15.3, 배 0.3

- (공산품) 반도체·전자표시장치 및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8% 하락(전년 동월대비 2.5%↓)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3.8월	9월	10월	11월 ²⁾	'13.8월	9월	10월	11월 ²⁾
총 지 수 ¹⁾	1000.0	-0.7 <0.1>	-2.4 <0.2>	-1.9 <0.2>	-0.8 <-0.3>	-2.2 <0.6>	-4.7 <0.9>	-4.6 <0.6>	-2.5 <-0.1>
농 립 수 산 품	4.3	-1.0 <0.6>	-3.5 <0.5>	2.6 <4.4>	-2.4 <-1.4>	-16.4 <9.6>	-14.0 <4.6>	-8.6 <1.3>	-8.4 <-0.2>
공 산 품	995.7	-0.6 <0.1>	-2.4 <0.2>	-1.9 <0.2>	-0.8 <-0.3>	-2.1 <0.5>	-4.7 <0.9>	-4.5 <0.6>	-2.5 <-0.1>
섬유·가죽제품	41.9	-0.7	-2.7	-1.0	-0.5	-0.7	-3.1	-2.8	-1.3
석탄·석유제품	123.9	-0.2	-2.9	-2.0	-0.2	-6.1	-9.4	-8.1	-3.6
화 학 제 품	173.8	0.2	-1.9	-2.6	-1.2	0.1	-3.1	-4.8	-3.3
제1차금속제품	95.7	0.8	-2.6	-2.3	-0.7	-8.8	-12.0	-12.3	-10.4
일반기계제품	90.8	-0.8	-2.6	-1.5	-0.5	-2.2	-4.7	-4.6	-3.2
반도체·전자표시장치	125.8	-2.7	-2.5	-2.2	-1.6	4.5	3.3	3.9	6.0
통신·영상·음향기기	59.6	-1.3	-1.4	-2.0	-0.2	-4.8	-6.7	-5.0	-3.4
수송장비제품	111.3	-0.6	-2.6	-1.3	-0.4	1.2	-1.7	-1.1	0.5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당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2013년 11월 수입물가지수

○ [수입물가] 원화 환율 및 유가가 내려 **전월대비 0.5% 하락**

※ 전년 동월대비 4.9%↓

- (원자재) 전월대비 0.6% 하락(전년 동월대비 3.5%↓)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1.7% 하락**(전년 동월대비 12.4%↓)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상승		쇠고기 5.4
	하락	커피 -8.8, 밀 -3.4, 천연고무 -2.8, 원면 -2.9, 옥수수 -0.8	옥수수 -25.9, 밀 -19.3, 커피 -25.3, 천연고무 -20.8

- (중간재) 비철금속과·1차제품, 일반기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하락(전년 동월대비 6.4%↓)

- (자본재 및 소비재) 전월대비 각각 0.9% 하락, 동일(전년 동월대비 각각 6.1%, 1.4%↓)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3.8월	9월	10월	11월 ²⁾	'13.8월	9월	10월	11월 ²⁾
총 지 수 ¹⁾	1000.0	0.6 <1.3>	-2.3 <0.4>	-2.4 <-0.8>	-0.5 <-0.1>	-5.3 <-3.0>	-8.1 <-3.8>	-7.3 <-2.9>	-4.9 <-1.7>
원 자 재	346.4	1.8 <2.7>	-2.2 <0.5>	-3.6 <-1.8>	-0.6 <-0.2>	-5.8 <-4.4>	-8.2 <-5.0>	-6.5 <-2.9>	-3.5 <-1.2>
농림수산물	21.6	-1.3	-2.7	-2.6	-1.7	-10.0	-11.4	-12.8	-12.4
광 산 품	310.3	2.1	-2.1	-3.8	-0.6	-5.4	-8.1	-6.1	-2.9
중 간 재	467.1	0.1 <0.8>	-2.4 <0.4>	-2.0 <-0.3>	-0.4 <-0.2>	-5.5 <-3.0>	-8.7 <-4.0>	-8.6 <-3.8>	-6.4 <-2.9>
자 본 재	94.7	-0.2 <0.0>	-2.9 <0.0>	-1.2 <-0.1>	-0.9 <-0.1>	-5.0 <-0.1>	-7.8 <-0.1>	-7.5 <-0.3>	-6.1 <-0.2>
소 비 재	91.8	-0.3 <0.1>	-2.0 <0.2>	-1.1 <-0.1>	0.0 <-0.6>	-0.3 <-1.1>	-3.2 <-0.3>	-3.1 <-0.3>	-1.4 <-0.9>

주: 1)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2) 당월 지수는 잠정치이며, 익월 지수 공표 시 확정됨.

※ 리포트 전문은 KREI리포터 사랑방 사이트(<http://reporter.kr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3. 11. 7 ~ 12. 4
- 수집대상: KREI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수집
- 접수건수: 32건
- 주요내용

〈겨울철 농기계 등 농업시설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 농가 대부분, 창고시설 없어 농기계 노상 방치해
- 농기계 관리부실, 폐유 등 흘러 환경오염
- 마을단위 창고시설로 농기계 공동 보관토록 해야
- 농기계 관리요령 교육 및 수리지원 요망
-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와 구입지원 후 농기계 관리 요구
- 겨울철, 점검 및 정비보수로 영농철 대비해야

〈기타 농촌현장 여론〉

- 배추값 폭락에 따른 대책 강구
-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로 풍년이 와도 농가수입은 오르지 않아
- 가축 분뇨처리 대안 마련 시급
- 한전, 일반 가정의 태양광 전기 이용료 적정 보상해야
- 농어촌버스 이용 편의 위해 버스노선 개선해야
- 유해조수 피해 극심, 농한기 때 최소한으로 포획해 피해 줄여야

□ 겨울철 농기계 등 농업시설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 농가 대부분, 창고시설 없어 농기계 노상 방치해

- 겨울철 농촌의 길가나 공터에는 못 쓰는 농기계가 버려져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관리부실로 고가의 기계가 자주 고장 나고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 지역의 25개 마을 중에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 마을은 5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마당 한 모퉁이에 천막을 덮어 놓거나 공터에 방치해둔 실정임.<충남 부여, 최영호>
- 농기계는 사시사철 실내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은행 보관창고나 개인소유의 창고 외에는 대다수 농기계를 계절에 따라 눈, 비를 맞히고 방치하는 실정임.<경기 평택, 연규석>
- 봄에 사용한 이앙기나 가을에 사용한 콤바인이 아직도 농경지 귀퉁이에서 비바람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임. 실상을 들여다보면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농기계를 집으로 가져가 달리 보관할 장소도 없고, 필요할 때마다 이웃과 협력해 공동 사용하던 것도 지금은 보기 드물기 때문이라고 봄.<강원 홍천, 변해동>
- 창고가 없는 농가는 겨울철 농기계를 방치하는 것이 대다수임. 마을단위로 농기계 창고가 있는 곳도 있지만, 트랙터나 경운기 등 대형 농기계는 노상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전남 화순, 나중주>
- 소형 농기계는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데,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대형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겨울동안 눈비 맞으며 방치되어 녹슬고 부식해 수리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못내 폐기처분되는 경우가 허다함.<충남 청양, 장석우>
-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수리센터는 보관시설 미흡으로 대형 농기계를 각자 농가에 보관하느라 비와 눈을 맞게 하고 관리부족으로 수명이 짧아지는 실태임.<경기 파주, 김천식>
- 농기계는 갈수록 자동화되고 가격이 더욱 비싸지는데, 보통 대형기종 2~3대를 보관할 만한 창고를 구비한 농가는 많지 않음.<충남 당진, 남도성>
-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해놓고도 사용 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겨울철 바깥에 무방비상태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종종 있음. 기계는 세척해 기름칠하고 창고에 보관해야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는 농기계 보관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강원 동해, 심호섭>

- 2년 전 군에서 농기계 관리에 대해 교육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나아진다고 싶더니 여전히 논두렁, 밭두렁에 농기계를 방치하시는 사람이 많음. <경남 함양, 박태우>
- 고가의 농기계 보관 장소가 부족해 노상 방치하고 있음. 방치해 둔 시설이나 농기계를 다음 해 보수할 때는 추가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농기계 및 시설관리는 더욱이 중요할 것임. <전북 남원, 권승룡>

○ 농기계 관리부실, 폐유 등 흘러 환경오염

- 일년 농사를 마무리 하고서 농기계를 잘 닦아 기름 치고 손질해 눈비 안 맞게 보관하여 다음 해에 사용해야 하는데, 보관시설이 마땅치 않아 관리가 쉽지 않음. <강원 정선, 남진하>
- 농가에 농기계 보관창고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농철이 끝나면 농가마다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음. <전남 순천, 김종근>
- 농한기가 오면 농장한쪽 구석에 농기계를 방치하기 일쑤임. 우리지역은 특히나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창고 등 시설물 건축을 할 수 없어 더욱이 어쩔 수 없이 여름에는 비를 맞고, 겨울에는 눈을 맞고 있음. 농기계는 해를 반복할수록 빠르게 부식될 뿐만 아니라 농기계의 기름때까지 씻어져 내려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 <경기 남양주, 김용덕>

○ 마을단위 창고시설로 농기계 공동 보관토록 해야

- 대형 농기계는 개인농가에서는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마을공동의 보관, 수리센터를 만들면 대안이 될 것임. <충남 부여, 최영호>
- 마을단위창고시설로 농한기에도 농기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동시설에 관리책임자를 두거나 혹은 기계를 많이 보관하는 농가가 관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기계를 공동 보관해 농기계가 필요할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전남 완도, 박향숙>
- 시설물은 비닐이나 부직포를 활용해 감싸고, 마을의 빈 집을 수리해 마을 공동창고로 이용한다면, 한 해 동안 사용한 농기계를 청소점검 후 보관해 감가상각비를 줄여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경북 영덕, 김현원>

- 마을 단위 공동으로 비용을 지불해 대형 농기계 보관창고를 마련하고, 전문 농기계수리기사에게 관리를 위탁하며 공동 보관한다면 보관비용을 절감하고 농기계의 잦은 고장에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임. <충남 청양, 장석우>
- 간혹 창고를 임대하려 해도 주인이 임대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농기계 보관용으로 사용하기를 꺼려하기도 함. 마을 내 사용하지 않는 창고시설은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불가능한 시설은 공매 처분해 마을 농기계창고로 공동이용하면 좋겠음. <강원 홍천, 변해동>
- 농협의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설하여 농한기에는 점검 후 보관토록 조합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겠음. <경기 파주, 김천식>
- 폭설과 폭우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하우스, 창고 설계를 지정해 정부정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임. <강원 동해, 심호섭>

○ 농기계 관리요령 교육 필요

- 지자체에서는 영농교육 시 별도로 농기계 관리요령을 교육해야 하며, 창고 등 시설물 설치 시 지원해 주길 바람. <충남 부여, 최영호>
- 농한기 때 기술센터 및 기술원에서 별도로 농기계 관리요령을 교육해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함. <경기 화성, 이윤현>
- 소형 농기계의 경우, 제작회사에서 튼튼하고 좋은 소재의 덮개를 제작해주어 함께 판매하면 좋겠음. 덮개를 씌워 보관하면 비·눈 피해를 현재보다는 줄일 수 있을 것임. <전남 화순, 나종주>

○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와 구입지원 후 농기계 관리 요구

- 정부에서는 농기계구입 시 융자나 면세유 등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 <경기 화성, 이윤현>
- 농기계 대출지원 기관에서 농기계 사후관리 차원에서 관리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고 대출금리를 차등 지원하게 되면, 앞 다투어 수리·보관에 노력할 것임. <전남 무안, 배병열>
- 시설 등 신규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용가능한 것은 유지보수관리비를 지원해 농가는 생산비 지출을 줄이고, 정부예산을 절감해야 함. <전북 남원, 권승룡>

-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을 확충해 농가가 보관하고 1~2번 사용하는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음.<강원 홍천, 변해동>
- 영월에서는 영농에 필요한 대부분의 농기계를 영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은행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별농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 관리가 필요치 않음.<강원 영월, 유영조>

○ 겨울철, 점검 및 정비·보수로 영농철 대비해야

- 농기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 후 흙이나 불순물을 깨끗이 닦아 기름을 치고 눈비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함.<경기 화성, 이윤현>
- 고가의 장비들을 눈발 독이나 노천에 비닐로 덮어서 쌓아 두는 경우도 보이는데 습기가 차면 녹이 슬어 오래 사용할 수 없고 고장이 잦아 영농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일제히 점검, 보수하여 깨끗하게 정리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함.<경기 안성, 임충빈>

□ 기타 농촌연장 여론

○ 배추값 폭락에 따른 대책 강구

- 우리나라 배추밭 면적이 늘어났다면 파종 전에 미리 줄여 심도록 유도하거나, 생산량이 많아지면 정부가 일부라도 사들여 값을 안정시켜야 마땅할 노릇인데, 일 년 동안 피와 땀으로 키운 배추만 하루아침에 폭락하게 될 상황에 놓여 안타까움.<경기 안성, 이길숙>
- 김치가공제조업자에게 배추를 값싸게 공급하면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무 등 다른 양념채소 공급까지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며, 언론 등 매스컴에서 앞장서 김치의 좋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홍보하면 안전한 국산김치 소비가 증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과잉생산된 배추를 시장에 제값 받고 팔 수 있을 것임.<경기 안성, 임충빈>

○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로 풍년이 와도 농가수입은 오르지 않아

- 올해는 기상여건이 좋아 모든 농산물이 대체로 질도 좋고 수확량이 많은 편임. 그러나 건고추 600g에 5~6천 원, 고구마 10kg 한박스에 1만~1만5

천 원, 들깨1kg에 5천 원, 배추 한포기에 500원, 무 1개에 200원 등 작년 시세에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라 수입은 흉년인 작년만도 못한 실정임. 대기업과 여러 사회단체에서 잉여농산물을 대량 구입해 당장 급한 불은 끈다지만 근본적인 농산물의 유통구조 자체에 개선이 없으니 농산물 가격안정이 쉽지 않음.<충남 부여, 최영호>

○ 가축 분뇨처리 대안 마련 시급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가축 분뇨의 처리가 문제되자 정부는 가축사육허가제를 도입해 규제한다고 발표함. 이를 틈타 제도시행 전에 너도나도 축사를 건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축분처리장이나 액비저장조 마저 없는 지역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악화시키고 있음.<경기 안성, 임충빈>

○ 한전, 일반 가정의 태양광 전기 이용료 적정 보상해야

-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전기 사용료를 가정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오히려 남아도는 전기를 아끼지 않고 모조리 사용함. 이런 처사가 전기 사용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한전으로 보내지는 가정의 태양광 전기는 가정에 일정금액 보상을 통해 절약에 힘쓰지 않을까 생각함.<경기 가평, 이재순>

○ 농어촌버스 이용 편의 위해 버스노선 개선해야

- 우리지역에서는 농어촌버스가 도(道)가 다르다는 이유로 왕래하지 못하고 10~15분이면 가는 거리를 아직도 30~40분이 넘게 돌아가는 곳이 있음. 가까운 거리를 빙 둘러 돌아 가야하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함.<경기 이천, 김민호>

○ 유해조수 피해 극심, 농한기 때 최소한으로 포획해 피해 줄여야

- 유해 새들과 짐승들로 인해 애써 지은 농사가 하룻밤 사이 쑥대밭이 되어도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는 노릇임. 환경보호단체 등에서는 개체보호와 종족 보존을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방치하여 계속해서 개체수효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니 농한기 때라도 최소한으로 포획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임.<경기 안성, 임충빈>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2월 9일~13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WTO 9차 각료회의 ‘발리 패키지’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12.3~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 회의**에서 159개 회원국이 모두 모여 협정 타결. 1995년 **WTO가 출범한 (2001년 정해진 DDA협상) 이후 처음 도출된 성과**. ▲(주요 합의 내용)△**무역 원활화**...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의 투명한 공표/수출입 관련 정보 제공 등 세관 당국 간 협력, △**농업 일부 분야 제도 개선**...3년 연속 저율 관세할당(TRQ) 소진율이 65%를 밑돌면 무역방해가 있다고 간주해 TRQ 관리방식 변경(한국 포함한 개도국은 관리 방식 변경 의무 면제)/개도국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 할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 구매 허용, △**개발도상국 우대**...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3개 분야로 구성된 **발리 패키지 합의**. 이 중 **농업분야는 TRQ 관리,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수출경쟁, 일반서비스, 면화 등 5개 이슈 포함**. 2015.7월까지 159개국 회원국 중 2/3 수락하면 수락 회원국 대상 발효. ▲**한국 경제 효과**...대의 무역 의존도 높은 경제에 긍정적, 비관세 장벽인 통관 절차 간소화로 **상품교역 활발, 기업의 수출입 여건 개선** 전망. 이번에 합의 못할 경우 ‘세계 주요 무역국들 WTO 떠날 것’ 우려감 팽배했지만 미국과 인도 등 이해를 달리하던 주요 국가들 극적 타결

※ [국제상업회의소(ICC)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PIIE)]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이상 수출 증대, 2,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로 무역 비용이 10% 감소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8.74% 증가 전망

【WTO】 1947년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오던 GATT체제의 문제점 해결 위해 만들어진 국제무역기구,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 행사

【발리 패키지】 WTO 회원국들이 DDA 협상의 일괄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합의 가능한 분야의 협상을 먼저 진전시키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방식 채택해 합의한 협정

【TRQ】 농업시장 개방 시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 매기고 이를 초과할 경우 높은 관세 적용하는 제도

자료 : 국민일보·경향신문·내일신문·농축유통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서울경제·아시아경제·아주경제·이투데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KBS·SBS QNBC(2013.12.9.)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2013.12.11.) / 한국농어민신문(2013.12.12.)

□ 안·호주 FTA 타결...축산업계 반발



○ 정부, 농업강대국TPP 회원국인 한·호주 FTA 실질적 타결(12.5일)되면서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도 급진전될 전망*. 특히 전국한우협회, **한·호주 FTA 발효될 경우** 한우업계 호주산 쇠고기로 인해 **4,365억 원(냉장육 1024억 원+냉동육 3341억 원) 피해금액** 추정치 발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 등 농민단체 일제히 성명서 발표하는 등 **농업계 반발**. **쇠고기와 돼지고기, 낙농품 등 호주산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큰 폭 증가** 예상되어 국내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 우려. 호주 농업은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것**이 최대 강점이므로 한미 FTA 이상의 파급력 예상. **한·호주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나라가 **호주산의 일방적인 수입 구조**란 점. 2012년 호주산 수입액이 우리나라 수출액의 30배인 상황에서 관세가 대폭 인하된 농산물 수입되면 무역 불균형 구조는 더욱 심화**. ▲**축종별 핵심 요구 사항**·(한우업계) 피해직불금 폐업보상 현실화 → 경영안정 제도 개선 급선무, (낙농업계) 우유 학교급식 제도화 → 자급률 높일 소비기반 확대 절실, (양돈업계) 환경규제·분뇨처리 부담 완화 → 생산비 절감 특대책 시급과제

※ 캐나다와의 FTA 조만간 마무리되고 뉴질랜드와도 내년 1분기 중 타결 되면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국회에 동시 제출될 가능성 높으며, 빠르면 2015.1.1.일자 발효될 전망

※※ 한우협회 추정,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관세 30%일 경우 전년대비(2012년) 7.14%↓, 20%일 경우 14.29%↓, 무관세일 경우 28.5%↓. 이럴 경우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각각 5.59%, 11.17%, 22.34%↑

자료 : 농민신문·농수축산신문·농축유통신문(2013.12.9.) / 축산신문(2013.12.11.)

□ 박대통령 농축수산물 간담회...FTA로 농어업 피해 없도록 최선

- 12.11일, **농축수산물인 오찬간담회 개최**, 농축수산물인들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가진 것은 2007.6월 이후 6년 6개월 만. 최원병 회장을 비롯한 농수임협 중앙회장, 김준봉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등 농어업인 단체장, 농축수산물인 등 35명 참석. **한·호주 FTA, 한·중 FTA 등 시장개방 대응과 관련 농축산업계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간담회

<박근혜 대통령 주요 발언 내용>

-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농어업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한·중 FTA에서 농어업 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보전해 나갈 것**”
- “**한·호주 FTA에 대해서도 앞으로 캐나다·뉴질랜드 등과의 FTA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속가능한 대책과 축산업의 체질강화 방안 마련할 것**”
- “창조경제라는 것이 과학기술과 산업만의 결합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생물이 태어날지 가치가 높아지면 그것이 다 창조경제, 농축수산물에는 그럴 수 있는 분야가 많다”
-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복지확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농어업 정책 3대축으로 삼고 있다**”
- “**농축수산물에 정보통신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을 융합시키고 생산과 가공, 유통과 관광이 결합된 창조적 변화를 통해 농축수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산업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
- “**지난 5년 동안 중국으로의 농수산물 수출이 연평균 24%나 증가하는 등 FTA를 활용하면 농어업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다**”
- “**수출개혁 전략팀을 만들어 수출품목 육성과 해외 마케팅 지원, 수입국의 검역 심사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노력을 기울려 농어업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

자료 : KBS-KTV·YTN(2013.12.11.) / 세계일보·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2013.12.12.) / 농민신문(2013.12.13.)

□ 쇠고기·돼지고기 유통단계 비용 소폭 증가, 닭고기·계란은 감소

- 축산물품질평가원, 최근 발간한 ‘2013 한국의 축산물 유통’ 조사보고서, 올해 **쇠고기·돼지고기**는 비용 중 **유통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닭고기·계란**은 **감소** ▲**한우거세 1+등급 1마리**를 키우고 이를 소비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중 **유통단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4%, 전년대비 0.1%p 상승**. ▲**돼지고기 한돈 1등급 1마리**를 키워 이를

소비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 중 **유통단계가 차지하는 비율 44.2%, 전년대비 0.9%p 상승**. 반면 ▲**닭고기 통닭 1마리의 비용** 중 **유통단계 58.4%, 계란**(특란 10개 기준)은 **52.8%** 차지해 **전년대비 각각 0.6%p, 0.3%p 감소** 이에 따라 품목별 농가 수취가격은 쇠고기가 644만8,545원 → 562만106원 (12.8%↓), 돼지고기 37만6,770원 → 33만8692원(10.1%↓), **닭고기·계란**은 각각 **10.7%, 21.4% 상승**. 한편 지난 10월 156만8,191마리로 월 단위 사상 최대 등급판정마릿수를 기록한 돼지는 지난달에도 등급판정마릿수 146만1,487마리 기록

※ 지난 7월~8월까지 실 유통경로별 유통주체(1300~1400여건)조사를 거쳐 진행, 조사결과는 유통량의 경우 1~6월, 유통비용은 7월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분석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3.12.12.)

□ 국산과일 소비 크게 증가

-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산 과일의 소비가 크게 증대. 이마트의 경우 연말 매출이 크게 급증하면서 매출 작년 동기보다 18%, 판매량 31% 증대. ▲**판매 증대의 원인은 가격과 고품질**...자연재해가 없는 등 좋은 기후 조건으로 원예농산물이 풍작을 이뤄 가격이 낮아지고 판매량 증대. ▲**국산 과일의 수요증대로 매출 순위도 변경**...2012년 순위는 귤, 바나나, 사과, 감, 배였지만 올해는 사과가 수입과일인 바나나 보다 높은 수요. 올해 겨울 국산과일의 소비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 한편 농경연 소비자패널 633명 대상 소비자 과일 구매 추이 조사 결과, 사과 등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안정세 보이자 소비자들의 구매량 증가하고, 과일 수입량은 감소 추세
- ※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11월 말 상급 15kg 사과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20%, 배는 40% 가량 하락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3.12.11.) / 한국농어민신문(2013.12.12.)

□ 농어촌 경로당 운영 ‘비상’, 농촌지역 교육환경 ‘열악’

- ▲**기재부, 2014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전액 삭감***(올해와 같은 292억9,100만 원) → **경로당 운영 비상**...국가 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선정돼 국가 차원의 보조를 하지 않다가 겨울철의 고유가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걸쳐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에 따라 전국 6만2,529개소의 경로당에 개소 당 난방비 월 30만 원(6

개월)·냉방비 월 5만 원(2개월) 지원. (한농연) 농어촌의 인구비율 2011년 33.7% 초고령화 사회 진입, 농어촌 노인의 빈곤율 도시에 비해 높은 상황, 경로당 난방비 지원 전액 삭감 철회 촉구. ▲**안행부, 2014년부터 지자체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편성 제한** → **농촌지역 교육환경 열악,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제한 지침’에 따른 경우 지자체 수입 기준 전국 82개 시·군·구 2014년부터 교육경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 ▲**한농연**,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등 대부분 도시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방과 후 학교, 예체능 및 영어체험교실 등 교육지원사업 중단 위기, **형평성 있는 정책 마련** 요구

※ 이유...국고보조 근거규정이 마련됐으므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 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이양사업 국고보조 제외원칙 및 타 산업 간의 형평성 감안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12.9.) / 한국농어민신문(2013.12.12.)

□ ‘가축재해보험금’ 부당 수령...지급심사 강화

○ 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금 불법 수령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사업 전반 특별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시행**. ▲**주요 내용**...△**가축재해보험금 부정수령하거나 이에 관계된 계약자는 보험가입 자격 제한**...보험사-손해사정법인과 합동으로 2014.2월까지 보험사업 특별 실태점검, 특히 소 재해보험 손해율이 평균 손해율(73%)보다 과다하게 높은 지역조합 집중점검. △**소 재해보험 손해평가 체계가 지역조합 자체 평가에서 조합을 배제한 보험사 주관으로 개편**...가축재해보험 불법 사례에 가담한 계약자는 보험가입 제한, 대리점은 계약 취소 또는 수수료 감액 조치, 보험사기에 공모한 수의사는 면허 정지, △**소 개체확인 및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사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 소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전 도축장에서 발급한 도축확인증명서 의무적 제출, 사고 소의 귀표 확인 시 소 전신 촬영 사진 첨부,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전 도축폐사 여부(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조회

※ 충남지역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의 다리를 묶어 쓰러뜨려 기립 불능상태로 만들거나, 수의사와 공모해 허위 진단서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한 축협직원과 농가 등은 기립불능이 되면 가축공제보험을 탈 수 있다는 약관 악용한 사례로 부당편취 금액 100억 원 이를 것으로 추정

자료 : 농민신문·한국농어민신문(2013.12.9.)

□ 기아문제 해결 위해 “가죽농 육성해야”

○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차원의 성공적인 2014년 세계 가죽농의 해를 위한 토론회’, **세계 기아 문제 해결 위해 가죽농 모델 육성** 제기. △그라지아노 다 실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가죽농은 최근까지 식량생산의 주역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가난과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인식, 지역경제를 지탱함은 물론 기아문제 해결과 식량안보, 종의 다양성 보호, 자연경관 보호에 큰 기여, 따라서 가죽농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다시안 치올로스 EU 농업총국 집행 위원...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가죽농의 중요성 역설. 한편, **FAO**는 내년에 지역별·국가별·국제 차원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가죽농의 중요성 홍보**할 방침

자료 : 농민신문(2013.12.11.)

□ 전기요금 인상 우폭풍...농가개값 ‘들썩들썩’

- **전기요금 인상** 후폭풍이 **농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대책마련 시급
- 농사용 전기요금은 2012.11월 체계 개편으로 단순화하면서 대폭 인상된 이후 2013.11.21일 평균 3% 이상 상승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 인가해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이 중 농사용 전기요금은 평균 3% 인상
- [계절별 최대 7.2%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
- 농사용 갑과 농사용 을(저압)은 약 2%씩 인상, 농사용 을(고압)은 기본 요금 5.2% 상승
- 정부, 기존 단일요금 체계에서 양배수용 등 농사본연의 용도와 영세 시설농 제외하되 대규모 기업농인 농사용 을(고압)은 **계절별·시간대별로 구분해 차등요금 적용**
 - ※ 현재 단일요금 체계에서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로 나뉜 차등요금 적용
 - 겨울철 전력수요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봄·여름·가을 전력량 단가 인상률은 2~3%, 겨울철 전력량 단가 인상률은 4~6% 적용
 - **전력사용 환경 변화 감안하고 전기소비자간 형평성 확보**한다는 명목 아래 **야간시간대(24시~9시) 단가 위주로 상향조정**
- 농사용 을(고압)을 쓸 경우 (변경 전) 1kWh당 39.1원의 전력량 요금 → (변경 후) **여름·겨울철(6~8월, 11~2월) 41.9원, 봄·가을철 39.9원**

[시설원예·양계농, RPC 직격탄]

- 여름·겨울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 7.2%에 달해 겨울철과 야간에 전기 사용량이 집중돼 있는 시설원예, 양계농가 등은 직격탄
 - 시설원예농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유류난방기 사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 우선 국제 유가급등으로 면세유의 가격이 현재 전기요금의 3배,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도 1%에 미치지 못하고 이들 시설 설치에 따른 자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
- 미곡종합처리장(RPC)·민간 도정시설들, 쌀 가공용은 산업용 전기요금, 벼 건조용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타격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RPC의 부담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1,000만 원 넘을 것이라는 전망

[철강업체, 철근가격 3만 원 인상]

- 산업용 전기요금의 6.4% 인상에 따라 농업용 펄름과 파이프 등 생산 업체들은 이들 자재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다소비 공정으로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이 불가피
 - 농업용 펄름은 제조 과정에 100% 전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어도 전기 요금 인상에 따라 5~7%정도 원가 인상요인 발생
 - 이에 따라 농업용 펄름 공급업체들은 내년 공급물량의 계통단가 인상 요구, 계통공급 계약 체결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농업용 파이프 가격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인상될 조짐

[농자재값 인상 대책 마련해야]

- 농민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농업경영비 절감, 시설 등에는 장기적으로 전기사용 대체할 수 있는 대책마련 필요
 - (농민단체) 최근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 크게 증가, 이번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농자재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직접적인 경영비 상승을 불러올 경우 농민의 어려움 더 가중
 - (시설원예농가)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 상당,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진행, 1년 사이 세 차례 이상 요금인상은 농업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

자료 : 한국농업신문(2013.12.13.)

연구 지원 정보

2013년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 본 자료는 2013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11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과 비슷한 보험세」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2013년 11월, FAO 식량가격지수*] 전월대비 0.1% 하락(206.3 point)

※ FAO 식량가격지수: '90년 이후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매월 작성·발표(2002-2004년 평균=100)

- 전월과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전년 동월대비 4.4% (9.5 포인트) 낮은 수치
- ※ 식량가격지수: (* 13.1월) 213 → (4월) 217 → (7월) 208 → (10월) 206.6 → (11월) 206.3

○ [하락원인] 유지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가격지수가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설탕 가격지수의 하락폭이 두드러짐.

□ 주요 품목별

○ [곡물] 전월대비 1.2% 하락한 194 point

- 올해 기록적인 곡물 생산으로 인해 공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밀, 옥수수, 쌀을 포함한 모든 곡물의 국제가격 하락에 기인

○ [유지류] 전월대비 5.6% 상승한 199 point

- 팜유 가격이 유지류 가격지수의 상승을 주도하였는데, 팜유는 바이오 디젤 생산 등으로 인한 수요 강세와, 동남아시아의 과도한 폭우(excessive rainfall)로 인한 생산 감소 예상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1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육류] 전월대비 0.1% 하락한 187.1 point

- 전년 동월 이래 큰 변동 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사료 가격 하락에 힘입어 가금육 가격은 안정세를, 돼지고기 가격은 내림세

○ [유제품] 전월대비 0.04% 하락한 251.4 point

- 전월과 사실상 동일하나, 전년 동월대비 23% 상승. 특히 분유(milk powder)의 경우, 중국 등의 수요가 강세를 띠면서 남반구의 가공업자는 버터 및 치즈 대신 분유 생산에 집중

○ [설탕] 전월대비 5.4% 하락한 251 point

-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의 생산 증가, 11월 미 달러화 대비 브라질 및 인도의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두 나라의 설탕 수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수하락

〈FAO 식량가격지수〉

연도		식량가격지수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2012년	1월	213	174	207	223	234	334
	2월	216	178	202	226	239	342
	3월	216	178	197	228	245	342
	4월	213	180	186	224	251	324
	5월	205	175	176	222	234	295
	6월	201	170	173	222	221	290
	7월	213	167	173	261	226	324
	8월	213	171	176	260	226	296
	9월	216	175	188	263	225	284
	10월	215	177	194	260	206	288
	11월	212	178	195	256	200	275
2013년	1월	213	184	211	244	200	268
	2월	213	186	211	241	202	259
	3월	215	185	228	241	197	262
	4월	217	187	257	231	194	253
	5월	214	180	253	235	194	250
	6월	212	180	246	232	194	243
	7월	208	179	244	222	187	239
	8월	205	182	248	207	182	242
	9월	206	186	251	195	184	247
	10월	207	187	252	197	188	265
	11월	206	187	251	194	199	251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